

호산나 호산나!

마태복음 21 장 1 절-11 절

2020 년 4 월 5 일 종려주일

들어가는 말:

고난 주간 부르는 찬송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거기 너 있었느냐 그 때에.” 입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그 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복음성가 가수로 널리 활동하던 빌 만(Bill Mann)의 생애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복음성가 공연을 은혜와 감동 가운데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그녀를 안내하는 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머거리요 병어리요 소경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빌 만(Bill Mann)에게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가 공연 중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는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다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병어리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손가락을, 사람의 입술과 성대에 대고 떨림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만은 바로 그 여인 앞에 서서, 그 여인의 손을 자기 입에 대게하고 다시 한번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그러자 그 여인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 해서 말하였습니다. 옆에서 통역하는 분이 말합니다. "I was there!" "I was there!" "Yes, I was there!"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네 거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명한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였습니다. 병어리 장님이었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모든 장애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거기 있었습니까?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고 난 받으실 때에 거기 있지 않았습니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거기 있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소리를 내며, 주님을 환영할 때에, 거기 있지 않았습니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니다. 첫 종려 주일 퍼레이드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우리는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상상력으로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환영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

호산나라는 말이 본래는 구원한다 라는 말과 지금 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기쁨과 축하의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의 자손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심을 환영하는 구호가 된 것입니다.

호산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외침입니다. 흥흥한 난세에 우리가 외치는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뒤집어 졌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침울한 때에, 우리는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여 합니다. “호산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환영합니다.

이 환영의 외침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실, 호산나의 본래 의미가 “지금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회개와 간구의 외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온 세상이 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짓누르고 살았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으르렁 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고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욕심 부리면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갖으려고 하였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 쓰레기가 가득차고 매연이 가득차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주간에, 한 동료 목사로 부터 받은 글 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우리는 모두는 한 배를 탔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상관 없습니다. 슈퍼마켓의 물건들이 동이 나고, 병원은 대만원입니다. 새 차나 헌 차나 다 멈추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요. 거리가 한산하여 졌고, 공해도 적어졌고, 공기가 맑아졌고, 그리고 땅들이 숨을 쉰다. 우리 인간들이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6일 만에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습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돈, 운동, 인기, 정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실은, 최고의 보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최고의 피난처는 가정이라는 것을, 최고로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고, 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세상이 흉흉한 이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회개 하며 간구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 자가 누구뇨?” 이 질문을 우리도 합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뇨?”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자는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 줄 큰 군대를 가진 메시아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는 바로 문제 골치덩어리라고 합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되는 날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어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시 때때로, 형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져있는 종교를 비판하셨습니다.

“이 자가 누구뇨”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을 때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 온갖 문제들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 주려고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사역하시면, 눈 먼자를 뜨게 하시고, 귀 먼자를 듣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들을 고쳐주셨지만, 당신 자신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고통과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과 악을 대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분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며는, 모세를 부르시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에 보며는 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고통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 하나 하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서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 욥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욥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계심으로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뻗어 주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업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가운데 신음할 때에, 함께 신음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를 환영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할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끊임없이 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 받고, 회복하고, 강건함을 얻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세상이 흉흉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절망의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치유의 사역, 위로의 사역, 새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높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고, 구원 주이심에,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주간에 함께 읽었던, 시편 93 편 18 절 19 절 “내가 미끄러진다고 외칠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내 마음 속에 걱정이 태산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가 우리의 고백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환영 영접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부활 생명 사역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헌신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